

# 거리 춤 축제 '스트리트컬처 페스타' 대표 관광 상품 부상

### 광주시 올 행사 1만5000여명 방문...관람객 전년보다 50% 늘어 미션투어·홍보부스 스탬프 투어 등 연계 프로그램도 흥행 시너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리트댄서들이 집결한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에 1만 5000여명이 몰려 들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9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4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에 지난해보다 5000여명 늘어난 1만5000여명이 찾았다. 특히 방문객들은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리트댄스를 관람하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축제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배틀라인업 9 1대 1 댄스배틀은 힙합 '스파이더', 왁킹 '제민', 팝핑 '엘터팝', 락킹 '미스터스플릿', 오픈스타일 '호안' 등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댄스팀 퍼포먼스 배틀 일반부는 '포커스', 청소년부는 '제트엔드로우'가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흥행몰이에 성공한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는 광주 관광의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는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인 '배틀라인업9'과 시민·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올해 축제 기간을 전년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한편 배틀라인업9 1대 1 댄스배틀 경연 종목에 '락킹' 장르를 추가하고 5·18민주광장에서

댄스팀 퍼포먼스 배틀을 여는 등 축제 운영에도 다양한 변화도 줬다.

이 밖에도 이번 축제에선 바다, 베이비슬릭, 헨리 링크, 미스터 위글스 등 스타급 심사위원의 독보적인 쇼케이스와 코스믹 디플로, 아티스트릿, 마화연, 엠비서스 등 유명 댄스팀이 다채로운 스트리트 댄스 특별공연을 선보여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축제장 곳곳에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인생네컷'과 신나는 케이팝(K-POP) 댄스게임, '맛있는 푸드트럭', '사고 싶은 폴리마켓' 등 다양하고 알찬 체험프로그램을 배치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스트리트컬처 페스타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들도 축제 흥행을 이끈 주역 중 하나다.

광주시는 케이팝(K-POP) 스타의거리에서 전일발딩245를 잇는 미션투어와 축제장 인근 관광지를 여행하는 '우리들의 시간은 이어져 있다', 아트패스 여행 바우처 제공, 홍보부스 스탬프 투어 각종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댄서들과 관람객의 열기로 광주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스트리트컬처 페스타와 관광을 연계한 덕분에 광주 곳곳에 활력이 넘쳐났다"면서 "광주 스트리트 댄스의 중심지가 되고 '스트리트컬처 페스타'가 광주의 여름 대표축제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9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2024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 '배틀라인업 9 광주'에 참여한 댄스팀들이 열린 경연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국화

### 오늘부터 1대1 서비스...지적·자폐성 장애인 2340명 대상

광주시가 첫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통합돌봄서비스'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을 받는 시간이 하루 평균 10.4시간으로, 최중증이 아닌 장애인(4.1시간)의 2.5배가 넘는 데도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기존의 돌봄서비스조차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광주시에에서 자체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340명, '주간 개별' 500명, '주간 그룹' 1500명 등 총 2340명에게 제공된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 산책과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

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다.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주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해 개인 맞춤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 그룹형"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주간에 그룹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18~64세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이용을 원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타해 등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고려해 일상생활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며, 식비 등 일부 경비는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경로당 이용 걱정 없게...9300곳 냉방비 지원

### 도, 전년보다 1만원 인상...7~8월 월 17만5천원

전남도가 9300여 곳에 이르는 도내 경로당에 냉방비 17만5000원을 7월부터 두 달간 지원한다. 미등록 경로당 211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남도는 10일 "전남도내 경로당에 대해 냉방비를 기존 16만5000원에서 1만원 인상에 7월부터 8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해 주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도 계속 추진중이다. 올해 신규 설치 50개소를 포함해 총 1451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124개를 설치해 경로당에서 공동 속식할 수 있는 생활공간 마련을 통해 마을공동체 돌봄으로 홀로사는 어르신

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관절염 등으로 좌식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176개 경로당에 입석테이블을 제공하는 사업도 보인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올 여름은 그 어느해보다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쾌적한 경로당에서 무더위를 식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 사업개발비·시설장비 분야 100곳...27일까지 시·군서 접수

전남도가 오는 27일까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

이번 하반기 공모에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2개 분야에 대해 총 100여 기업에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총

113개 기업에 15억원을 지원해 기업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개발비는 기업의 제품 품질 개선,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시설장비는 기업의 신규 생산시설과 장비 구입 및 교체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 있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지

정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이다. 관찰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현장실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8월에 전남도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변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자립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